

광산구, 금타 화재 피해 수습·일상 회복지원 ‘총력’

화재 진압 지원·피해 현황 조사

피해 호소 2차 임시대피소 운영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수습과 일상 회복에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1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발생 나흘만인 20일 오전 11시 50분 완전히 진화됐다.

잔불 정리를 위한 건물 해체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재난 관리권은 광산구로 이양됐다. 광산구는 지난 17일부터 가동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유지하며, 사고 수습·복구 주체인 금호타이어와 협력해 상황 관리·점검, 피해 주민 생활 안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불길에 잡힌 뒤에도 악취, 낙하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2차 임시대피소 운영을 결정했다.

2차 대피소는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마련했

다. 광산구는 대피소 설치와 함께 공장 주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대피 수요를 파악하고, 대피를 희망하는 주민의 이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피 주민이 더 늘어나면 수완문화체육센터까지 대피소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대피소에 입소한 주민이 불편함 없이 안정을 취하도록 의료·식사 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오는 28일까지 송정보건지소 1층에서 금호타이어와 주민 피해 현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조사 이틀 만에 주민 피해는 2,4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피해 보상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 확산과 혼란을 해소하고, 금호타이어가 조속히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방식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신체 이상 증세, 심리적 불안을 겪는 주민을 위해 광산구청 송정보건지소 1층에 설치한 의료상담 창구도 28일까지 운영을 지속한다.

박병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불은 꺼졌지만 피해 주민의 불안과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구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해 2차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광주 광산구 하남다누리체육관에서 21일 대피한 주민들이 관계자들에게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동구, 청년 정착하고 성장하는 도시 만든다

교육·주거 등 5대 분야 56개 사업

광주 동구가 청년들이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실천형 창업 지원과 맞춤형 교육 정책으로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도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 문화, 일자리, 청년 교육, 주거·복지, 참여·권리 등 5대 핵심 분야 총 56개 사업에 4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문화 분야에서는 동구 청년센터(D. GIT) 운영을 비롯해 청년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등 총 9개 사업이 진행된다.

학교 밖이 캠퍼스가 되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의 ‘도시캠퍼스’가 서남동 인쇄거리에서 운영되며, 시민 참여행사로 폐기물 업사이클링 디자인, 청년 예술가 작품 판매 등이 추진한다.

동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록 유도하고 소통 가능한 예술 플랫폼 운영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기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동명청년창업소, F&B 커머스 빌딩 프로그램 등 총 15개 사업을 운영하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창업 정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창업 이후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마케팅·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창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교육 분야는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소소한 삶 기술 채우기, 청년공감 강연, 영 스피커 등 총 9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동구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한 주거·복지 분야 17개 사업에는 398억원을 투입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고 복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남구, 대선 준비 만전…“유권자 불편 최소화”

유권자 17만 6417명…50대 최다 첫 투표자 2492명, 최고령 113세 24일 전단형 공보물·안내문 발송

광주 남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며 민주시민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남구지역 유권자는 17만 6,417명으로, 남성과 여성 유권자는 각각 8만 3,501명과 9만 2,916명이다.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2,492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4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유권자가 3만 3,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유권자가 3만 2,524명으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과 60대 유권자는 각각 3만 808명과 3만 349명이었으며, 30대와 20대 유권자도 각각 2만 3,058명과 2만 2,4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최고령 유권자는 만 113세 여성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관리관과 장비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테스트했고, 28일까지 2차례에 걸쳐 모의시험을 진행한다.

남구는 앞서 유권자 판단에 필요한 대통령 후보자 공약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지역 9만 5,831세대에 발송했으며, 오는 24일에는 전단형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는 남구지역 70곳에 설치된다.

사전투표소는 지역 17개동에 각 1곳씩 설치되며, 투표소 설치 작업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거지에서 가까운 투표소 또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해 관리 행사에 나설 수 있다.

본투표소 설치의 다음 달 2일에 이뤄진다. 지역 17개동 53곳에 투표소가 마련되며, 거주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관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남구는 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당일까지 구청 분청 및 17개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전화에 선거 일정과 참여를 안내하는 콜러링을 제공하며, 구청 앞 미디어월을 활용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유권자가 직접 보는 것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라며 “내가 바라는 세상은 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관리 행사에 나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서구, 세큰대 동 중심 평생학습 캠퍼스 운영

광주 서구가 주민들의 일상 속 배움 문화 확산을 위해 18개 모든동에 평생학습 공간인 ‘동 캠퍼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는 광주지역 자치구 중 유일하게 18개 전체 동을 ‘동 캠퍼스’로 지정하고 11월까지 82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한다.

‘동 캠퍼스’는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권 내 공간을 학습 거점으로 활용해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세큰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 캠퍼스’는 각 동의 BI와 연계한 특화 강좌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치평동 ‘초록이 온통 치평’, 화정3동 ‘손으로 즐기는 힐링타임’, 서창동 ‘전통문화 토틀공예’, 동천동 ‘생각이 자라는 독서 토론술’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서구 세큰대 평생학습 누리집을 통해 강좌 정보 확인과 수강 신청이 가능해져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수강생 강모씨는 “관심 있는 강좌가 여러 동에서 운영돼 시간만 맞으면 인근 동 캠퍼스 수업까지 골라 들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좋다”며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 일상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북구, 제1회 ‘무등문학상’ 작품 공모

광주 북구가 제1회 ‘무등문학상’ 작품 공모에 나선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무등문학상’은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북구가 신설한 문학상이다.

공모 대상은 창작활동을 하는 전국의 작가이다.

북구는 △대상 부문 △작품상 부문으로 나뉘어 응모를 받는다. 대상 부문은 최근 3년 이내 출간, 타 문학상 수상 이력이 없는 개인 작품집을 모집한다. 또, 등단 작가만 응모할 수 있다.

작품상 부문은 운문, 산문 및 평론 분야로 등단 여부에 관계없이 발표된 적 없는 창작 시·소설·수필·동화·평론 등을 접수한다.

북구는 오는 7~8월 중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작품상 2명(운문 1명, 산문 및 평론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8월 중 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0만원, 작품상 각 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북구민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나눔리더, 나눔기업 인증패’ 전달

광주 동구청장 임택은 21일 접견실에서 불사리노, 동광주새마을금고 등 나눔이여로 가입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리더, 나눔기업 인증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 동구 제공

북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3년 연속 ‘최우수’

주민 체감형 공약 이행

광주 북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전국 기초지자체의 △공약 이행 완료율 △2024년 공약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

도 등 5개 분야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자체별 5개 평가 등급(SA·A·B·C·D)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약 사업의 내실 있는 이행 기반을 구축하며,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약 실천 과정에 주민 참여를 폭넓게 보장해 왔다.

특히 1,30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기후 위기

대응 항구적 자연 재난 안전 도시 조성 공약’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빈도가 잦아진 국지성 호우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주민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오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주민 일상에 필요한 ‘생활 SOC 확충 공약’은 ‘북구 권역별 10분 안에 만나는 생활SOC’를 실현시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SA’ 등급을 3년 연속 달성했다.

최환준 기자